

# 위기의 제자와 스승 “승리 양보 못해”

(KIA 선동열 감독) (한화 김응용 감독)

# 박희영 무서운 뒷심 연장전 끝에 우승컵

## 프로야구 전망대

위기의 '제자와 스승'이 왜냐무 다리에서 만난다.

3월30일 스타트를 끊은 2013 프로야구가 반환점을 돌고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한화 이글스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16·17일 전반기 마지막 2연전을 치른다. 18일부터는 올스타 브레이크에 들어간다.

KIA와 한화의 대결, 프로야구를 대표했던 제자와 스승이 위기의 맞대결로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개막 초반 선두 질주를 했던 KIA는 5위 자리에서 전반기 마지막 2연전을 준비하고 있다. 2년 연속 풀지 못한 불펜 고민과 휴식기 일정 관리 실패로 우승이 아니라 4강 고민을 해야 하는 입장.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선동열 감독에게는 2연전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위기의 승부다.

제자와의 승부를 앞두고 있는 한화 김응

선감독, 끝까지 한화에 잡히면 시즌 4강도 고민해야 할 판

## 김감독, 3할에도 못 미치는 승률에 구겨진 자존심 찾기

용 감독에게도 승리가 절실하다. 한화는 72경기에서 21승을 챙기는데 그치며 승률이 3할(0.29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생팀 NC에도 밀리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 감독은 최하위의 성적은 물론 예측 불허의 선수단 운영으로 명장의 자존심을 구기고 있다.

KIA 김진우와 한화 바티스타가 사령탑을 구하기 위해 그라운드 전면에 선다.

김진우는 올 시즌 3.61의 평균자책점으로 7승4패를 남겼다. 한화전은 시즌 첫 출격이다.

피로누적으로 2군에 다녀왔던 바티스타는 4.32의 평균자책점으로 5승6패를 기록하고 있다. KIA와의 경기에서는 두 차례 등판해 승과 패(평균자책점 2.19)를 하나씩 가져

갔다.

김진우는 상대 타자들과의 승부와 함께 자신과의 싸움도 해야 한다. 휴식기와 장마가 겹치면서 지난 2일 SK와의 원정경기 이후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주말 두산 전에서도 비와 소사에게 밀리며 마운드 대기만 하다 돌아왔다. 오랜만의 등판에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은 만큼 경기 초반이 중요하다.

김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도우미로 친정팀 상대에 나설 이병호와 신종걸이 기다리고 있다.

타격 밸런스 난조로 고전했던 이병호는 6월을 기점으로 서서히 상승세를 보이며 감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한화와의 경기에 강했다. 8번의 대결에서 0.412의 타율

## 프로야구 중간순위(15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삼성	73	43	28	2	0.606	0.0
2 LG	74	43	31	0	0.581	1.5
3 넥센	72	41	30	1	0.577	2.0
4 두산	73	38	33	2	0.535	5.0
5 KIA	68	35	31	2	0.530	5.5
6 롯데	72	37	33	2	0.529	5.5
7 SK	72	32	39	1	0.451	11.0
8 NC	74	28	43	3	0.394	15.0
9 한화	72	21	50	1	0.296	22.0

로 고평행진을 했다. 4개의 홈런포를 날리며 11타점도 쓸어들렸다.

신종걸의 친정팀 대결은 더 화끈했다. 시즌 타율은 0.360. 한화전 타율은 0.692에 이른다. 전체 24타점 중 10타점을 한화 마운드를 상대로 뽑아냈다. 4월2일에는 4안타 6타점 경기를 펼치며 친정팀을 울렸다.

가대 이하의 전반기를 보낸 KIA가 연승 속에 느긋한 올스타 브레이크를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LPGA 매뉴라이프 클래식

박희영(26·하나금융그룹)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클래식에서 연장전 끝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박희영은 15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워털루의 그레이 사일로 골프장(파71·633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6타를 줄여 합계 26안타와 258타로 앤절라 스탠퍼드(미국)와 동타를 이겼다.

박희영은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3차전에서 버디를 잡아 파에 그린 스탠퍼드를 따돌렸다. 박희영과 스탠퍼드가 72홀에서 작성한 258타는 역대 LPGA 투어 최스타(타수 기준) 타이 기록이다.

박희영은 2011년 11월 타이틀 허더스 대회에서 LPGA 투어 첫 승을 올린 이후 1년 8개월만에 승수를 추가했다. 우승 상금은 19만5000 달러(약 2억2000만원)다. 박희영의 우승으로 올 시즌 LPGA 투어의 한국 선수들은 9승을 합작했다.

4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렸던 박인비(25·KB금융그룹)는 16안타와 268타를 쳐 공동 14위로 대회를 마쳤다.

박희영은 LPGA 투어 공식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에서 퍼트가 너무 잘 됐다”며 “연장전에 들어가서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긴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희영은 아마추어 시절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필성부부 딸이다.

한영외고에 다닐 때인 2003년부터 2년간 국가대표를 지냈고 2004년 아마추어 자격으로 출전한 국내대회 하이트컵에서 우승한 뒤 2005년 프로로 전향했다.

탄탄한 기본기와 함께 가장 이상적인 스윙 자세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은 그녀는 2005년 한국 여자프로골프(KPGA) 투어 신인왕을 차지하며 이름 석 자를 확실하게 알렸다. 2005년 파브 인비테이셔널 등 국내 무대에서 세 차례 정상에 오른 박희영은 2007년 릴



리파인 스퀘어에서 3위를 차지하고 LPGA 무대에 진출했다.

박희영은 미국 진출 4년째인 2011년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LPGA 투어 마지막 대회인 CME그룹 타이틀허더스에서 95전 96기만에 마침내 샴페인을 터뜨리고 코리아 남자군단의 우승 대열에 합류했다.

자신감을 얻은 박희영은 2012년 비록 우승컵은 들어 올리지 못했으나 톱 10에 5차례 진입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림대학 사회체육학과 교수인 아버지 박형섭 씨의 권유로 초등학교 4학년 때 골프에 입문한 박희영은 장타자이면서 쇼트 게임 능력도 갖춘 선수로 통한다.

국내에서 워던 시절 ‘로켓’으로 불릴 정도로 쪽 빠가는 드라이버 샷이 일품으로 꼽혔다. 올해 평균 비거리는 252.87야드로 LPGA 전체 47위, 평균 타수는 71.69로 전체 30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대회까지 벌어들인 총상금은 322만 6000 달러(약 36억 3000만원)다. 한편 그의 여동생 박주영(23·호반건설) 역시 KLPGA 투어에서 뛰는 골프 자매의 일원이다.

/연합뉴스

## 특&Talk

# 가슴 설레이는 올스타 무대, 재미가 사라진다?

유독 알미운 선수가 있다. 만나기만 하면 호수비 열전을 펼치거나 슬럼프 무색한 활약을 한다든가. 그 알미운 선수를 ‘내 선수’로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별 중의 별’이 한자리에 모이는 올스타전이 그런 무대다.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이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응원하는 선수가 다른 팀 선수와 배터리를 구성하거나 키스톤 콜비로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올스타전의 매력이다. 올스타로 선택을 받은 선수들에게도 영광스럽고 가슴 설레는 무대이다. 그런데 흥겨운 잔치가 되어야 할 올스타전이 어느 순간부터 쉬어가는 하루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사실 경기 자체부터 재미없다. 긴장감 넘치는 승부를 기대하기에는 시즌에 대한 부

담감이 크다. 선수들의 숨겨진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축제의 무대가 연출되는 것도 아니다. 각 팀 선수들이 모여 친선 경기를 하는 날, 딱 이만큼이 올스타전의 의미가 되고 있다.

올스타 투표 논란도 축제의 재미를 반감시키고 있다. 2년 연속 포지션 싸움이 이뤄졌다. 롯데의 돌풍이 불었던 지난해에는 동군팀이 ‘롯데 올스타’로 꾸러졌다. LG의 신바람이 불고 있는 올 시즌에는 ‘LG 올스타’가 서군을 대표하게 됐다.

앞치라퀴리락 선수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표심이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웠지만 그 재미가 사라졌다. 그렇다고 응원하는 팀 선수를 올스타 무대에서 보고 싶다는 팬심을 탓할 수도 없다. 최고의 별을 뽑는 기준이 딱히 없는, 말 그대로 인기투표

이기 때문이다.

프로스포츠 사상 첫 600만 관중 돌파, 올스타전 역대 최다 득표 경신, 이런 수치에 심취한 KBO(한국야구위원회)의 선택을 우선 표집이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올스타전 투표는 오로지 온라인상에서만 진행됐다. 1일 1회 투표 제한이라는 장치가 있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허술한 장치였다.

투표 시작과 함께 가족·친지·친구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독식 전쟁이 벌어졌다. 성적이나 활약 여부가 아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팬층이 두터운 팀이 자리를 선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장 투표가 사라지면서 올스타전 분위기가 한층 더 지루해졌다. 기분도 지을 수 없다. 인터넷, 스마트폰이 보편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신

문으로 야구를 읽고, 현장에서 표를 구하는 이들도 있다. 인터넷 문화에 익숙지 않은 중·장년층 팬들에게는 올스타전 참여 기회가 사라진 셈이다.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투표뿐만 아니라 후보들이 직접 나서서 올스타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수들이 인정하는 선수, 물표가 가능한 팬 투표뿐만 아니라 현장의 선택도 올스타라는 자부심을 더해줄 것이다. 당연히 올스타전에 더 영광스럽고 흥미로운 축제가 될 것이다.

프로야구가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스포츠로 자리를 하고 있지만 ‘텅 빈 관중석’도 불과 몇 년 전 이야기다. 수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프로야구의 내실을 기할 때다. 올스타전도 그 중 하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추신수 vs 류현진

# 코리안 빅매치

28일 오전 다저스타디움서 투·타대결

미국 프로야구에서 벌어지는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과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간 꿈의 한국인 투타 대결의 날짜가 28일(이하 한국시간)로 사실상 확정됐다.

다저스 관련 뉴스를 전하는 웹사이트 SB 내이션 ‘트루 블루’는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이 15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개막전 마지막 경기에서 후반기 선발 투수 로테이션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류현진은 올스타 휴식기 이후 후반기 4번째 선발투수로 출격한다. 그는 전반기에 우완 채드 빌링슬리가 손가락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하자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에 이어 2선발로 시즌을 맞이했다.

다저스는 20일 워싱턴 내셔널스와 방문 3연전으로 후반기를 시작한다.

매팅리 감독은 리키 놀라스코, 잭 그레인키, 커쇼를 첫 3연전에 퍼붓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방문 3연전에는 류현진, 크리스 카푸아노, 놀라스코를 차례로 내보낸다.

류현진은 23일 캐나다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토와의 경기에 후반기 첫 등판한다.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던 11일 애리조나와의 경기 이후 12일만에 다시 마운드에 오른다. 매팅리 감독은 17일 뉴욕 시티 필드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커쇼를 필두로 전반기에 많이 던진 투수들에게 체력을 되찾을 여유를 주고자 로테이션 순서를 조정했다.

류현진은 토론토에 이어 28일 오전 10시 10분 홈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 시즌 20번째로 등판할 예정이다.

류현진이 다쳐지 않고 선발 로테이션을 지킨다면 신시내티 투타 추신수와 맞대결이 무난히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현진을 영입한 다저스는 신시내티의 추신수를 염두에 두고 26일부터 29일까지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신시내티와의 4연전을 ‘한국인의 날’ 행사로 치를 전망이다. 미국에서 한국 교포가 가장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류현진과 추신수의 맞대결을 통해 흥행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이다.

대위 첫해부터 코리안 몬스터 열풍을 주도한 류현진과 올 시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을 앞두고 몸값을 높이는 추신수의 불꽃 튀는 격돌이 한국과 미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점쳐진다.

/연합뉴스